

“국가인증 감리제” 도로·교통 분야까지 확대 ‘26년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발 추진

국토교통부, 2026. 6. 10.(수)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질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7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의 학력·자격·경력 중심 평가방식에서, 실제 현장관리 능력과 전문성,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 이후 감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건축시설 분야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처음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기존의 건축시설 분야에 더하여 도로·교통시설 분야까지 선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와 교통시설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국가 기반시설로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가 요구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시설 및 도로·교통시설 분야에서 총 200명 이내의 우수건설기술인을 선발하여, 이들이 주요 공공 건설현장의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에 맞춰 우수건설기술인 선정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건축시설 분야, 도로·교통시설 분야뿐만 아니라 수자원 분야, 단지개발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발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증서’가 발급(유효기간 3년)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선정된 건축시설 분야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26년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고, 올해 선정될 우수건설기술인에 대해서도 ‘27년 발주될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정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2026년도 국가인증감리 신청자격 및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

'24년부터 '26년까지 실시한 건축시설, 도로·교통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 충족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의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정

신청방법 및 일정

서류접수는 7월 20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4주간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0월 중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11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일정

선정계획 공고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CSI 공고 및 홍보	6.11(목)
'26년계획 설명회	• 제도 소개, '26년 선정계획 및 신청방법 안내 등	7.8(수)
신청서류 접수	• 신청접수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7.20(월)~8.14(금)
서류심사 실시	• 관계기관 검증 등을 통한 서류심사 실시	9월중
면접심사 실시	• 전문지식, 전문소양 면접심사 실시	10월중
심의위원회	• 우수건설기술인 최종 선정에 대한 심의	11월중
선정결과 발표	• 선정결과 개별통보, 선정현황 CSI 등 공개	11월중

인공지능(AI)과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

국토교통부, 2026. 6. 12.(금)

국토교통부는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경기도 수원시, 특화단지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를 선정하였고,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공모 결과, 경상남도, 충청남도 태안군을 선정하였다.

「2026년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

사업유형	지방정부	사업부제
거점형	경기 수원시	도시를 잇고, 생활을 움직인다.
특화단지	부산광역시	AX Era, AX-Ready City : Centum
	경기 성남시	성남형 라이프모빌리티 특화단지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경상남도	「경남모두다」 체류형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활동 AI분석 및 국민체감형 혁신서비스 구축
	충남 태안군	데이터허브 기반 연안 안전·환경 운영 지원 솔루션 ‘태안 안심해(海)’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3개년)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2개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6월까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 공고(3.13) → 접수(5.11~13) → 예비검토·현장실사(5.14~6.4) → 종합평가(서면 6.9, 발표 6.10)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 실증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내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광역에 구축된 데이터허브* 기반으로 범용성을 갖춘 우수한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1개년)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사업’을 공모하고, 6월까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수집·연계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 공고(4.14) → 접수(5.21~26) → 예비검토(5.27~29) → 종합평가(서면 6.4, 발표 6.11)

각 유형별 선정된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는 지방정부 1곳, 수원시가 선정되었으며, 3년간 최대 국비 160억원(국비:지방비=1:1 매칭)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피지컬 AI 기반의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업 실증을 지원하여 데이터 기반의 도시 혁신을 추진한다. 나아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원형 스마트 성장 모델’을 구현하고자 한다.

카셰어링, 주차로봇 등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고, 로봇배송, 순찰로봇 등 생활편의 및 안전·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리터러시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민공감과 창업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 기반 공동 실증센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 성장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거점형: 경기도 수원) 도시를 잇고, 생활을 움직인다

- **(총사업비)** 328.5억원
- **(사업위치)** 수원시 팔달구 일원
- **(주요내용)** 건내주는 한아름 카셰어링, 대신해주는 주차로봇, 데려다주는 출퇴근 맘파서들, 피지컬시 충전 인프라, 피지컬시 시민공감센터, 가져다주는 전통시장 로봇배송, 액티브시 시민체감 운동서비스, 지켜주는 순찰로봇, 시도시운영 재난대응플랫폼, 도시데이터 AI 수집DOT, 찾아가는 리터러시 교육, 웨어러블 피지컬시 건강케어, 피지컬시 창업지원센터
- **(참여기관)** 현대자동차(주), 기아 주식회사, 한진케이디엔(주), 주식회사 씨엘모빌리티, 기온로보틱스(주), 주식회사 콜로세움코퍼레이션, (주)영국씨앤피, 수원도시재단



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에는 총 2개 지방정부가 선정되었으며, 각 지방정부에 3년간 최대 국비 80억원(국비:지방비=1:1 매칭)을 지원한다.

부산광역시시는 도시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 도시관리 운영 및 기업의 도시공간 실증을 지원하는 산업육성형 AX 실증도시를 목표로,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을 개방형 AI 도시실증 플랫폼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AI 에이전트 도시통합관제, 로봇망 기반 지능형 안전관제 등을 통해 도시운영을 효율화하고, 도시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비식별화·구조화하여 기업이 서비스 개발·실증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의료검증 기반의 고령자 건강관리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 모빌리티로 지역 내 앵커공간을 연결하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서울대병원 일원을 라이프모빌리티 특화단지로 조성하고자 한다. 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관리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AI 모니터링을 통해 고령자 헬스케어 모델을 구현하고, 병원·복지시설 생활권에서 원격전진 이동지원, 자율주행 셔틀 제공 및 실증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 부산광역시) AX Era, AX-Ready City : Centum

- (총사업비) 168억원
- (사업위치)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
- (특화유형) 지능형관제&안전
- (주요내용) Centum OS(개방형 도시실증 운영 플랫폼) 기반의 AI 멀티에이전트 도시통합관제, 자율형 로봇망 안전관제 등 개방형 AI 도시운영 체계 구축
- (참여기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디토닉, (주)슈모스랩, (주)스마트플래닝, (주)동림티엔에스, 비에스앤시스팀즈주



(특화단지 : 경기도 성남) 성남형 라이프모빌리티 특화단지

- (총사업비) 168.3억원
- (사업위치)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등 일원
- (특화유형) 모빌리티, 헬스케어
- (주요내용) 원격전진 기반 이동지원, 로봇주차 및 충전로봇, 자율주행 셔틀 / 고령인구 만성질환 관리 및 케어벨 AI 일상생활 수행능력 모니터링 등
- (참여기관) (재)성남산업진흥원, (재)성남시정연구원,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주)카오헬스케어, (주)저로웍,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주)에스유엠, (주)소아이티, (주)윌피엔에스



3.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에는 총 2개 지방정부가 선정되었으며, 각 지방정부에는 1년간 최대 국비 10억원(국비:지방비=1:1 매칭)을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관광객의 이동과 체류를 데이터로 연결하여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경남형 '광역 공동활용 플랫폼 「경남 모두다」를 구축'한다.

관광과 관련된 도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인구 기반 AI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모니터링 및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관광, 이동, 체류, 소비 흐름을 분석하여 기상, 연경 등 맞춤형 코스 추천, 실시간 혼잡도 분석하여 교통·주차 분산 유도,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마케팅 지원 등

충청남도 태안군은 데이터허브 기반 AI 연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확산형 해양안전 스마트 운영 지원 솔루션 「태안 안심해(海)」를 개발'한다.

연안지역의 현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위험 상황을 조기 예측 및 현장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에이전트 기반 통합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조위(물때) 등 해양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악수·고립 등 이상상황 자동탐지 후 위험지수 임계치 초과 시 관제센터와 119·해경 등 실시간 경보 및 긴급 출동 등

「'26년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선정 지방정부 주요 내용

경상남도 ^{주관} + 17개 시·군(공동수행)	충청남도 태안군 ^{주관} + 충청남도(공동수행)
○ (총사업비) 20억원(국비 10, 지방비 10) ○ (시범솔루션 내용) 관광·유동인구·축제·상권 데이터를 공동활용하여 관광객 이동·체류·소비 흐름을 실시간 분석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는 AI 도시서비스 플랫폼 구축 ○ (관할 외 지원 광역지방정부) 태안군	○ (총사업비) 20억원(국비 10, 지방비 10) ○ (시범솔루션 내용) 태안 주요 해양관광지의 실시간 현장 데이터를 수집·연계, 시기·반 상황인지 및 이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상황을 조기 인지하고, 현장 대응까지 지원하는 연안 상황인지 솔루션 개발 ○ (관할 외 지원 광역지방정부) 경상남도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을 통해 6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첫 K-AI 시티 원주·천안아산에서 먼저 만납니다

국토교통부, 2026. 6. 19.(금)

교통시설물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 운영에 AI 기술을 접목시켜 최적화·지능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AI 시티가 현실로 다가온다.

국토교통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공동참여)를 선정하였다.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선정 결과

권역	지방정부	사업명 및 참여기관
강원	원주	도시가 스스로 이해하고 움직이는 AI 혁신도시 - 에스트래픽(대표), 현대자동차, NHN클라우드 등 7개 기관
충청	천안·아산 (공동)	시로 연결되는 하나의 미래, 천안·아산 - 오케스트라(대표), 업스테이지, 노타시, 한전KDN 등 11개 기관

AI 특화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는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AI가 도시 전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K-AI 시티 선도모델이다.

공공에서는 AI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민간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AI 기술 혁신과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AI 생태계 구현을 목표로 한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강원·충청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는 강원권 3개(강릉, 원주, 춘천)와 충청권 3개(대전, 천안·아산, 청주) 총 6개 지방정부가 응모(5.18~22)하였으며,

사업대상지 현장실사 등 예비검토(5.26~6.12)와 지방정부별 제안서 서면·발표 평가(6.16~17)를 통해 시범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반 여건과 AI 역량을 갖춘 권역별 지방정부 1개소(총 2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강원권에 선정된 원주시는 에스트래픽(대표), 현대자동차, NHN클라우드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총 7개 기관)과 함께 도시가 스스로 이해하고 움직이는 AI 혁신도시를 제안하였다.

산업·주거·문화가 집적된 강원 원주 혁신도시를 우선지구로 설정하고, 지역 AI 자원(AI NVIDIA 인증 교육센터, 산업용 GPU센터 등)과 연계하여 도시와 함께 AI생태계가 선순환하는 AI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충청권에 선정된 천안·아산시(공동)는 오케스트라(대표), 업스테이지, 노타 등 11개 기관과 함께 천안·아산의 공동 생활권을 연결하는 초광역 AI 도시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유동인구 및 교통량이 집중되는 천안아산역 일대를 우선지구로 설정하고, 지역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여 두 도시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초광역권 시시티 표준 정립을 목표로 한다.

국도교통부는 7월부터 시범도시 사업 구체화를 위한 기본구상 연구를 추진하고, 법령 정비를 거쳐 '27년 시범도시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지방정부,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도시데이터 활용, 실증사업 등과 관련한 규제 특례* 부여와 함께 도시지능센터, 고성능 데이터 수집·활용 시설 등 AI 인프라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일부구역 내 원본 데이터 처리·활용, 교통안전·신호체계 등 교통시설 운영, 자율주행·UAM 등 모빌리티 시범지구 지정의제 등(관계기관 협의 이후 법 개정 추진 예정)

AI 특화 시범도시 개념도



AI 응용제품, 1~2년 내 시장으로 달린다 AX-Sprint 229개 제품·서비스 선정

관계부처합동, 2026. 6. 19.(금)

정부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의 선정 결과를 6월 19일 발표했다. 동 사업은 생활·산업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형 제품을 1~2년 내 상용화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가 현장 수요를 발굴하고 기획예산처가 총괄·조정하는 11개 부처* 협업사업이다. 이번에 229개 제품·서비스**를 선정하여 총 7,540억원을 지원한다.

* 기획처(총괄), 산업·과기정통·국방·농식품·복지·기후·국토·해수·중기부, 식약처

** 일부 과제는 선정·재공고·추가 선정 절차 진행 중(당초 246개 지원 계획)

선정 제품은 일손, 돌봄, 안전 등 시의성 높은 분야에 집중되었다. 농·축·어업 현장에서는 오이·딸기를 자동 수확해 운반하는 로봇, 도축 공정을 자동화하는 로봇, 양식장 급이 시간·양을 자율 결정하는 시스템 등이 감소하는 일손을 대체한다. 고령자 대상으로는 보행 패턴을 감지해 낙상을 줄이는 보행보조차, 스마트홈과 재가 돌봄을 연계한 24시간 돌봄 체계, 호출형 농촌 수요응답 교통모델 등이 이동·돌봄 공백에 대응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시설·화재 위험을 자율 비행으로 점검하는 드론, 현장을 순찰하는 자율주행 세미-휴머노이드 로봇, 위험한 철거작업 등을 대신 수행하는 건설 로봇 등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생활 전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색 제품도 다수 선정되었다. K-소스·장류의 맛·풍미를 설계하고 발효 이상을 감지하는 제조 지능화 솔루션은 전통의 맛을 데이터로 표준화하며, 한강에서 위험 소리를 감지해 구명장비·드론 출동을 지시하는 자율구조 시스템은 인명 보호에 기여한다. 이 밖에도 바닷속 오염을 자율 탐지·청소하는 환경미화 로봇, 폐전자제품 내 유가금속을 AI가 분석하고 로봇이 선별·회수하는 도시광산 자원회수 시스템 등이 포함되었다. 일상의 익숙한 영역부터 인력이 달기 어려운 분야까지 AI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선정과제 대부분(209개, 91.3%)은 제품을 실제 도입·사용할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개발 단계부터 수요기업이 참여함에 따라, 상용화 이후 초기 판로 확보와 현장 안착까지 원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K-소스 제조 AI 솔루션은 개발기업과 함께 식품기업이 도입기업으로 참여하여, 제품 완성과 동시에 실제 생산라인에 적용될 예정이다.

AX 스프린트 선정결과 대표 사례

농·축·어업 일손 감소 대응	○ 오아딸기를 스스로 수확해 선별장으로 자동 운반하는 로봇 ○ 크기·형태가 제각기 다른 축산물 도축 공정을 자동화하는 로봇 ○ 양식장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양을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
고위험 산업 현장 안전관리	○ 드론이 자율비행하며 시설·작업자 안전, 화재 등 감지하는 시스템 ○ 산업 현장 안전관리 위한 자율주행 세마-휴머노이드 로봇 ○ 위험한 철거작업 등을 대신 수행하는 건설 로봇
고령자 맞춤형 이동·돌봄 서비스	○ 고령자 이동시 패단 균형 변화를 감지해 넘어질 위험을 줄여주는 보행보조차 ○ AI 스마트홈 기기와 재가 돌봄 서비스 연계 통한 24시간 돌봄체계 ○ 실시간 호출에 따라 버스가 찾아가는 농촌특화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이색 제품·서비스	○ K-소스·장류의 맛 설계, 발효 이상감지 등 공정 자동화 솔루션 ○ 위험 소리 인식 통한 한강 수난사고 감지 및 자율구조 시스템 ○ 해상·바닷속 오염을 스스로 찾아내고 청소하는 바다 환경 미화 로봇 ○ 폐전자제품 속 귀금속을 AI가 분석·선별·회수하는 도시광산 시스템

이번 공모에는 246개 과제 모집에 총 1,604건이 접수되어 평균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선정기업 중 중소기업이 188개(82.1%),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59개(25.8%),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98개(42.8%)로 집계되어, 중소·창업·지방기업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성장 기회로 작용한다. 또한 과제 중 국산 AI 모델 채택 과제가 41.3%, 국산 AI반도체(NPU) 채택 과제가 30.6%에 달했다. 이는 국산 AI 모델·반도체가 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선정 제품의 신속한 시장 안착을 위해 후속 지원을 추진한다. 협약 체결 과정에서 기업별 규제 애로를 조사하고, 필요시 규제샌드박스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혁신조달 등 민간·공공 판로 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AX-Sprint는 시장과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AI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현장형 재정사업”이라며, “선정기업들이 1~2년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관계부처가 규제·조달·판로 등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산업발전 가속화를 위한 국내 최초 E2E 학습데이터 가이드라인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6. 19.(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데이터를 국내 산·학·연이 함께 구축하고 쉽게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 E2E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및 규격 정의서」(이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 패러다임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한 하나의 인공지능(AI)이 인지, 판단, 제어를 통합 수행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이하 'E2E')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방식은 막대한 양의 학습데이터가 필수적인 만큼 웨이모(미국), 바이두(중국)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도 실증 거리를 확대하며 학습데이터 구축량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 센서 입력부터 제어 명령까지를 하나의 AI 모델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정의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Rule-based 방식과 달리 정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응 가능

그러나, 국내는 자율주행 학습데이터를 각 기업·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차종에 따라 센서 위치 등이 다를 경우 학습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기 어려워 데이터 부족 문제가 지속되며, 이는 데이터양과 인공지능(AI) 성능이 비례하는 E2E 방식 기술개발의 병목으로 작용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학습데이터 공유·활용을 극대화하고 기술 동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 E2E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 전 주기를 포괄하며, 국내 연구진의 연구 편의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먼저, ①데이터 수집, 가공, 정합·보정, 라벨링 등 자율주행 E2E 학습데이터 구축 절차를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에는 ②센서 구성과 저장 포맷 등 수집 시스템 요구사항과 이렇게 수집된 원시데이터의 검증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③시나리오 선별 등 데이터 가공, ④위치 보정, 공간 정합 등 정합·보정 방법, ⑤라벨링 항목과 라벨링을 통해 생성되는 학습데이터 셋 규격 등 라벨링 방법을 정리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구축한 ⑥학습데이터 사례를 제시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범부처 자율주행 R&D 사업*의 과제를 통해 개발한 과기정통부 핵심 성과 중 하나이며, 기존의 연구개발 계획에 머물지 않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과제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도로 개발하였다.

* 「지울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21년~’27년,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경찰청 협업)

또한, 가이드라인 초안 수립('25년 말) 이후에도 '26년 한국 ITS 학회 특별세션('26.4.23.), 자율주행 산·학·연 간담회('26.6.9.)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이 이론에 그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도시 단위로 대규모 E2E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지원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등에 실제 활용하면서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홈페이지(www.kadif.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 기업, 연구소 등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싶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박태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동 활용 가능한 자율주행 데이터 체계가 구축되고, 고품질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면서, “향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24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자율주행 AI 챌린지'에도 연계하여 본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E2E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및 규격 정의서



도로안전부터 건설현장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AI 응용제품 26개 선정

국토교통부, 2026. 6. 25.(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일환으로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해 공모를 추진하여 AI 기술이 접목된 총 26개 제품·서비스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 기획처, 국토·산업·과기정통·국방·농식품·복지·기후·해수 중기부, 식약처

'AX-Sprint(전력질주)'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 AI 지원사업과 달리 단기간(1~2년) 내 시장 출시 가능한 완성형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 속 국민의 AI 체감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 AX(AI Transformation)' 사업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토·교통'과 '도로·모빌리티' 두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총 147개 과제(국토·교통 82개, 도로·모빌리티 65개)가 접수되어 평균 5.9: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 중 상용화 가능성, 국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26개 과제(국토·교통 14개, 도로·모빌리티 12개)를 최종 선정하였고 2년간* 총 7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 유형 ①(Agile 트랙, 1년 내 시장 출시) : 16개 과제, 600억 원 → '26년 지원

유형 ②(Build-up 트랙, 2년 내 개발 완료) : 10개 과제, 150억 원 → '26~'27년 지원

특히,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과제들은 출·퇴근길 도로 위부터 주거 공간까지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기반의 공간지능 로봇이 아파트나 사무실 실내 환경을 스스로 이해한 후 자동 배송하여 일상 속 편리함을 높이고, ▲AI 건설 로봇이 위험한 철거 작업을 대신 수행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조한다. 또한, ▲비접촉식 AI 기반 측정장비가 철도종사자의 다중생체신호를 분석하여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함으로써 위험 유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일상 속 AI 체감도를 높이는 기술이 선정되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도로·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작업구간 내 자율주행 안전 로봇이 도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AI 기반의 도로상태 분석과 포트홀(도로파임) 자동탐지를 통해 도로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며, ▲실시간 AI 교통상황 분석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등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AI 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전 국민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막 3개월 만에 참가자 100만 명 돌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6. 2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6일을 기점으로 「전 국민 인공지능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참가자가 개막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공지능 관련 퀴즈 풀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활동, 인공지능 기반 문제해결 및 기술·서비스 개발, 인공지능 활용 사례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초중고 학생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연령과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고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챔피언’(전문가) 및 ‘인공지능(AI) v 새내기(루키)’(대학생)는 5억 원의 최고 상금이 걸린 대회로 1,124개 팀이 참가 신청하여 현재 200개 팀이 본선 과정을 진행 중이다. 6월말 기준, ‘인공지능(AI) 창작대회’ 및 ‘로봇공학 경연대회(로보틱스 챌린지)’는 초중고 학생 2,726명이 모집되었고, 9월까지 전국 권역 지역 예선이 이어질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인공지능(AI)을 게임처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클릭온 인공지능(AI)’은 69만 명, 인공지능이 출제한 퀴즈 문제를 풀어보는 ‘인공지능 퀴즈대회’는 33만 명이 참여하는 등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5월에 개최한 ‘경진대회 홍보영상 경진대회(챌린지)’에는 233개 팀이 지원하여 전문가 심사를 거쳐 8개 팀을 선정, 대국민 투표를 진행했다. 그 중, 흥부전을 새롭게 각색한 영상을 만든 ‘오리네 가족’ 팀은 어머니가 기획을, 아들이 영상 제작을 맡아 가족이 함께 도전해 눈길을 끌었으며, “인공지능은 전문가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경진대회에 대한 국민적 참여 열기에 힘입어, 인공지능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인 ‘클릭온 인공지능(AI)’ 시즌1 운영 기간을 당초보다 2주 연장해 7월 21일(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29일(월)부터 경진대회 참가자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이벤트)가 진행되며, 인공지능과 함께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콘텐츠인 감사 편지, 그림일기 등을 만들어 본 ‘우리 가족 마음 잇기 인공지능 경연(AI챌린지)’ 우수작에 대한 온라인 전시회도 6월 30일(화)부터 열린다.

본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전 국민 인공지능 경진대회」 누리집(홈페이지) (<https://aichallenge4al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검색하여 접속 가능하다.